

2022년 책 읽는 영등포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사업

영등포구 선정 '한 책' 독서토론 가이드북

2022년 독서토론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함께한 사람들

책 읽는 영등포 어린이한책추진단 1기
책 읽는 영등포 한책추진단 1-3기

2022년 영등포구 선정 '한 책' 독서토론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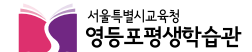
발행일	2022년 8월 1일
발행처	영등포구립도서관
발행인	영등포문화재단
기획·실행	영등포구립도서관 도서관운영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0-7 © 2022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립도서관

[비매품]

- 이 질문지는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립도서관에서 시행하는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구 어린이한책추진단1기, 한책추진단1-3기와 한국독서연구소가 만든 논제로 수익목적의 무단사용 및 도용은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북에 수록된 발췌문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도서의 각자와 출판사에 있습니다.

2022년 책 읽는 영등포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사업

영등포구 선정 '한 책' 독서토론 가이드북



내 삶을 바꾸는
지식 서
문화 도시
울



[관찰아, 행복한 기억을 지켜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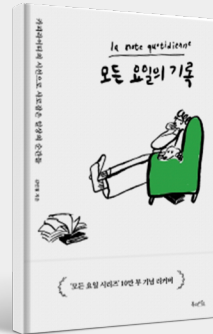
2022년도 영등포구 선정 '한 책'



[관찰아, 행복한 기억을 지켜 줄게]
레이철 입
개암나무



[일년전 로드뷰]
전성현 글/오승민 그림
별숲



[모든 요일의 기록]
김민철
북라이프

[가이드북에 수록된 발췌문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도서의 작가와 출판사에 있습니다]

1 함께 소리 내어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요.
※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2 '관찰아, 행복한 기억을 지켜 줄게'를 읽고 난 느낌이 어떨까요?
※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3-1 할머니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과 아멜리아가 '할 일을 깜빡'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3-1과 3-2 중 선택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아멜리아의 할머니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6p)
아멜리아도 할 일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7p)

3-2 여러분은 아멜리아처럼 할 일을 깜박할 때가 있나요?

아멜리아도 할 일을 깜박할 때가 있어요.
상상에 잠기거나 즐거운 모험에 푹 빠지면 그렇지요. (7p)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아멜리아와 할머니는 나무처럼 생긴 기억 저장소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억 저장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멜리아가 물었어요.
 “기억 저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같이 알아보자꾸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9p)

5-1

여러분의 기억 저장소에는 어떤 기억과 물건들이 있을까요?

※ 5-1과 5-2 중 선택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길의 지도, 순간, 추억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타세요!” (12p)

5-2

여러분이 잊은 기억 중에 찾고 싶은 기억은 무엇인가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길의 지도, 순간, 추억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타세요!” (12p)

6

기억 저장소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 친구들의 생각과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기억 속에서 사라진 기쁨의 순간들이 방 안을 팔랑팔랑 떠다녔어요.
 꼭 종이처럼 얇고 섬세한 나비 같았지요. (15p)

7

할머니의 아지트는 식탁 밑이었어요. 여러분만의 비밀 아지트는 어디에 있나요?

※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비밀 아지트와 즐겨 입던 파란 드레스. (16p)

8

아멜리아의 기억 저장소 방에는 깜빡하고 제때 말하지 못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상자가 있어요. 친구들의 기억 저장소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깜빡하고 제때 말하지 못한 ‘정말 감사합니다.’가 상자에 쌓여 있었어요. (20p)

9

할머니는 아멜리아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왜 사랑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 친구들의 생각과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아멜리아,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단다.”
 “할머니는 언제나 널 사랑한단다.”
 “저도 늘 할머니를 사랑해요.”
 아멜리아가 말했어요.
 “절대로,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27-29p)

활동1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언제인가요?

신선한 빵 냄새.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
 재주넘기를 하면 찾아 오는 기분 좋은 어지러움.
 비밀 아지트와 즐겨 입던 파란 드레스. (16p)

활동2

행복한 기억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뒤, 아멜리아는 할머니가 기억 저장소에서 골라 온 추억들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쉽게 기억하도록 사진을 붙이고 설명도 더했어요. (24p)



[일년전로드뷰]



1 <일년전로드뷰>는 전성현의 장편동화입니다. 일년전 지진이라는 큰 재난을 겪은 아이들 윤지, 수아, 태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2 이 책에는 세 친구가 겪은 지진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지진 상황이 나오는 문장이나 내용을 찾아볼까요? 어떤 느낌인가요? (책 내용 중에 파란색으로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색깔을 넣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울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38p)
 모두가 한곳에 엉켜 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다. (48p)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49p)
 민방위 훈련 때나 듣던 사이렌 소리였다. (50p)
 많은 건물이 부서지거나 금이 간 그대로였다. (53p)
 그 흔적도 오래전 일인 듯했다. (54p)
 전봇대가 휘청였다. (67p)
 “라면 끓이던 중이었는데 (중략) 반찬 그릇이 다 쏟아졌어.” (73p)
 “냄비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이 내 허벅지로 쏟아졌어.” (75p)

3

윤지, 수아, 태우는 지진의 경험 때문에 각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나요?

점심을 먹는 아이들 대부분이 소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수아는 밥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 (9p)
 더는 식사하기 힘들었다. (중략) 수아는 수저를 챙겨 들고 꾸역꾸역 밥을 먹었다. “야, 재 좀 봐.”
 지나가는 아이들이 하나둘 수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도 소라 읊에서 전학 온 애인가 봐.” (10p)
 “넌 왜 축구 안 해?” (중략)
 “맨날 구경만 하지 말고 너도 해”
 수아도 거들었다.
 “다, 다음에” (중략)
 “태우 요즘은 축구도 안 해. 체육 시간에도 힘들다고 빠지고.” (12-13p)
 수아는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가는 사이 빗자루를 집어 들었다. 마음이 급했다. 앞자리부터 책상 사이사이를 빗자루질해 쓸어 내는데, 한 남자아이가 청소함에 서 꺼내 오던 대걸레를 교실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렸다. 그 소리에 놀란 수아가 “악!” 소리를 지르고는 앞에 있던 책상 밑으로 후다닥 숨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청소하던 아이들의 눈길이 모두 수아에게로 쏠렸다.
 “풋.” “크크크.”
 수아를 지켜보던 아이들은 하나둘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은 주위 아이들에게 그만 웃으라는 듯 눈짓을 하고는 부르르 떨고 있는 수아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수아야?”
 수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대답도 못 했다. (19p)

4

대걸레 떨어뜨리는 소리에 놀라 책상 밑에 숨은 수아를 보고 같은 학교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은 소라읍에서 온 애들 때문에 체육 대회도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학교 아이들은 수아를 포함해 소라읍 아이들에게 왜 험담을 하는 걸까요?

수아는 가방을 멘 뒤 선생님이 건넨 책을 받아 들고는 교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데 몇 아이의 속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너무 티 낸다.”
 “누가 소라읍에서 전학 온 거 모를까 봐.”
 수아는 걸음을 멈추었다.

“재 때문에 교실 문도 맘대로 못 열겠어. 아무 때나 깜짝 깜짝 놀라.”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전학 온 애들 때문에 체육 대회도 못 한 거 아니야?”
 “그랬어?”
 “갑자기 학생들이 많아지고 아파서 힘든 애들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내뿜었다. 그 속에 같은 반 남자 회장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늘 친절하고 다정한 아이라고 여겼는데, 속마음은 달랐던 모양이다. (21-22p)

5-1

태우는 지진을 겪은 일로 문을 열고 불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주변에 말하지 않습니다. 수아는 지진이 났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숨깁니다. 태우와 수아가 지진을 겪은 후 변한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수아야, 그런데 넌 왜 애들한테 너희 엄마 얘기 안 해?”
 윤지의 물음에 수아는 손에 든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다 되물었다.
 “해야 해?”
 “엄마가 돌아가신 걸 굳이 감출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말해도…….”
 수아의 엄마는 지난해 지진이 났을 때 돌아가셨다. 윤지의 말대로 엄마 얘기를 감출 필요는 없지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수아는 생각했다. 엄마가 어쩌다 돌아가셨는지를 얘기하면 어른이고 아이고 지진 얘기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사람보다 사건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어?”부터 “엄마는 어디 계셨어?” “왜 사고 장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까지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수아에게 지진이 큰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얘기까지 했다. 높은 건물이 많지 않고 지하철이 없는 곳이라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고도 했다. 모든 걸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만 판단했다.
 수아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오랜 시간 힘들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는 어디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아무것도 다행인 것은 없는데 엄마가 죽어 다행이라고 하는 것 같아 아무하고도 엄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95-96p)

5-2

수아는 지진으로 엄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진이 대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한 이 말에 공감하나요?

6

아이들이 지진을 겪고 난 후 각자 마음에만 담고 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라음을 찾아가는 곳에서 비밀 이야기를 서로에게 털어놓는 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지진 났을 때 말이야. 나 그때 집에 있었거든.”
 태우의 말에 수아와 윤지의 표정이 바뀌었다.
 “라면 끊이던 중이었는데 냄비 옆에 있던 프라이팬이 통통 튀어 오르더라구. 네모난 창문은 비틀어지며 기익기익 소리를 내더니 유리창이 깨져 버리고, 냉장고 문은 저절로 열리면서 반찬 그릇이 다 쏟아졌어.”
 “그때 일 때문에 지금도 냉장고를 잘 못 열겠어. 안에 든 반찬들이 통째로 쏟아져 내릴 것 같아.”
 “지나간 얘길 뭐 하러 하나?”
 윤지가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 말했다.
 “그때, 그날 말이야……. 냄비에서 끊고 있던 뜨거운 물이 내 허벅지로 쏟아졌어.” (73-75p)
 “다리도 아픈데 자전거는 왜 끌고 다녀?”
 윤지가 다시 자전거 얘기를 꺼냈다.
 “도망가려고. 지진 나면 얼른 자전거 타고 도망가려고. 불편해도 그 정도는 탈 수 있어.”
 예전 같으면 태우 말에 웃었겠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 태우 말이 맞았다. 지진이 나면 타고 갈 수 있는 건 그나마 자전거밖에 없었다.
 “창피하긴 한데 난 문이 안 열릴까 봐 지금도 화장실 문 못 닫고 불일 봐. 씻을 때도 그렇고.”
 태우가 굳은 얼굴로 어렵게 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아이들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맴돌았다. 그러다 머쓱해하는 태우를 보고 있던 윤지가 얼른 대꾸했다.
 “뭣가 창피하냐? 나도 잘 때 잠옷 안 입어. 외출복 입고 잔다구. 지진 나면 바로 도망가려고.”
 수아도 질세라 말했다.
 “우리 집에는 생존 배낭도 있다.” (중략)
 수아는 현관에 그 배낭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다. (중략)
 모두가 마음에만 담아 놓고 있던 얘기를 꺼내 놓았다. (중략) 한동안 수다가 이어지고 나니 모두 속이 시원한 얼굴이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얼굴이 환해져 있었다. (76-78p)

7

이 세 친구들이 소라 마을에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찾고 싶은 물건이 있지만 마음이 힘들고 위험할까 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 볼 건가요?

수아는 고민이 되었다. 도망치듯 떠나게 된 동네지만 다시 한번 가 보고 싶었다. 매일 다니던 학교와 놀이터도 그리웠고, 전에 살던 집에 놓고 온 사진들과 지금은 작아졌을 옷과 신발들까지 모든 것이 다 보고 싶었다. (중략) 소라읍에서 태어나 쪽 살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추억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사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소라읍을 재개발한다는 소식까지 뉴스에 나왔다. 건물 대부분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였다. 그렇게 되면 영영 살던 동네는 다시 볼 수 없을 거였다. 이번에 가지 않으면 아예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근데 어른들은 왜 소라읍에 가는 걸 싫어하지?”

태우가 뿔뿔한 얼굴로 말하자 윤지가 대꾸했다.

“그때 일이 또 생길까 봐 그런 거지, 뭐.” (29-30p)

버스가 출발하자 소라읍에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낸 태우가 정작 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수아와 윤지는 아무 대꾸도 못 하고 앞좌석 손잡이를 꽉 붙들었다. 모두가 불편한 모습이었다. 수아는 버스가 덜컥거릴 때마다 불안했다. 구역구역 먹은 점심이 체했는지 속도 울렁거렸다. 부우웅거리는 시끄러운 버스 엔진 소리는 수아에게 이제 그만 내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꼭 가야겠다는 생각에 수아는 마음을 다잡았다. 계속되는 그리움에 힘들고 싶지도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 못 가 본 아쉬움에서도 벗어나고 싶었다. 어쨌든 이번 일을 시작으로 조금씩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33-34p)

-가 볼 것이다

-가보지 않을 것이다

8

윤지, 태우 수아는 옛 동네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옵니다. 태우는 잃어버린 축구공을, 윤지는 보물상자 속에 편지를, 수아는 잃어버린 고양이 까망이를 찾습니다. 이 세 물건들은 각각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 오늘 여기 올 줄 생각도 못 했어.”

수아의 말에 윤지가 보물 상자를 꼬옥 안으며 말했다.

“나도 보물 상자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태우는 찌그러진 축구공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는 뱅그르르 돌려 보았다. “일 년 전 잃어버린 축구공도..”

아이들은 오늘 하루 마법 같은 시간을 보낸 느낌이었다. 붉은 노을이 지며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고양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윤지는 보물 상자를, 태우는 축구공을 손에 들고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사이 아이들을 찾는 휴대 전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벨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울려 댔다. (140p)

9

세 아이는 소라 읍에서 '로드 뷰'를 하며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또, 태우는 축구공을 찾았고 윤지는 보물상자, 수아는 까망이를 찾는 마법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이들의 행동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문방구?”

“응, 문방구에 진열되어 있던 장난감이랑 뽑기 기계는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윤지의 얼굴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그러자 태우가 휴대 전화를 꺼내 들며 말했다.

“우리 로드 뷰로 예전 모습 찾아볼래?”

“로드 뭐?”

윤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로드 뷰. 도로를 실제로 촬영한 사진 보여 주는 거.”

“실제 사진?”

“전에 아빠가 길 찾는다고 사용하는 거 본 적 있거든.”

태우가 휴대 전화를 켜더니 지도를 로드 뷰로 설정했다. 수아와 윤지의 눈길이 모두 태우의 휴대 전화 화면으로 쏠렸다. 휴대 전화 안에 예전 학교의 모습이 나왔다. 주위 동네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날짜를 보니 일 년 전에 촬영된 소라읍의 모습이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평화로운 마을 모습을 보자 수아와 윤지의 얼굴에 생기가 되살아났다.

“여기가…….”

태우가 고개를 들고 길 건너편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 앞 문방구다.”

아이들은 휴대 전화 화면에서 건너편 건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맞아, 맞아. 예전 문방구 모습 그대로다. 뽑기 기계도 있고.” (122-123p)

윤지와 태우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수아가 휴대 전화를 빼앗아 들었다. 그러고는 화면을 움직이며 자신이 살던 동네를 찾았다. 계절은 다시 봄이었다. 세탁소와 편의점, 미술 학원 간판이 달린 눈에 익은 건물들이 보였다. 그리고 나니 수아는 엄마가 더욱 보고 싶었다. (128p)

-긍정

-부정

* 독서토론 소감을 나눠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발언 중 인상 깊었던 것을 꼭 이야기해주세요.



[모든 요일의 기록]



1 <모든 요일의 기록>은 '한 줄의 문장을 짓기 위해 수백 개의 감각과 기억을 사용하는' 카피라이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김민철 작가의 에세이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2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같은 구절을 읽어도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능력이 있으나 내 몸 어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기록하는 방법인 읽다, 듣다, 짚다, 배우다. 쓰다 내용 중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프롤로그 내 모든 기록의 쓸모에 관하여
 제 1장 읽다: 인생의 기록
 제 2장 듣다: 감정의 기록
 제 3장 짚다: 눈의 기록
 제 4장 배우다: 몸의 기록
 제 5장 쓰다: 언어의 기록

3 저자는 인간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소설을 읽고, 독서는 기본적으로 오독이며 오독의 순간조차도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낭만적 오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그날 밤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문장은 어쩌면 나의 철저한 '오독'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다. 선생님의 설명은 안 듣고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내 세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독서는 기본적으로 오독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오독의 순간도 나에게겐 소중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그 책은 나와

교감했다는 이야기니까. 그 순간 그 책은 나만의 책이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때 나를 성장시켰든, 나를 위로했든,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든, 그 책의 임무는 그때 끝난 거다. (p.40)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건만이 전부라 아니듯, 뉴스에 나오는 사건만이 오늘의 일이 아니듯, 소설 속 주인공의 진실만이 전부라 아니니까. 진실은 없거나, 혹은 별만큼이나 많은 것이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험담을 듣고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모르지."라고 말하며 균형을 잡는 사람이라면 신뢰를 하게 된다.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한쪽을 고스란히 평가하지 않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잘 안되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소설을 읽는다. 소설을 읽으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인간을 배운다. 감정을 배운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인지, 왜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왜 나와는 다른지, 왜 나와는 다른 선택으로 다른 선택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짚어간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희박한 이해의 가능성을 소설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면서 읽는다. 어쩔거나 나는 카피라이터니까. (pp.48~49)

4 저자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도 일기를 씁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을 일기장에 쓴 후에야 사람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의 저자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쓰기 시작했다. 32년간의 감정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감정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왔지만 결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었던 그 감정에 대해. 썼다. 쓰고 또 썼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라고. 그제야 나는 나에게 닥친 그 사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제야 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쓴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아빠의 장례식장에 가면서 본능적으로 가방에 일기장을 챙겨 넣은 건 무슨 이유였을까. (중략)

읽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행위가 마지막에 '쓰다'에 도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점일지도 모른다. 나는 읽고서 쓰고, 보고서 쓰고, 듣고서 쓰고, 경험하고서 쓴다. (p.259)

하지만 나에게겐 타임머신도, 두 번의 기회도, 좋은 머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쓸 수밖에 없다. 쓰면서 그 막연함을 약간이라도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 글을 쓰면 적어도 복기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 감정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니까.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해해보려고 적어도 노력해볼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 쓴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다. (p.261)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불안과 그 상처를 그에게 다 드러낼 순 없었다. 그러기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섰다. 그리하여 말로 하기엔 너무 구차한 그 작은 상처들을

나는 일기장에 털어놓았다.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아야 내가 살 수 있었다. 쓰고 쓰고 또 썼다. 그렇게라도 쓰고 나면 위로가 되었다. (중략)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썼구나. 그러니까 아빠의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서랍 속 일기장을 꺼냈던 것이다. 30여 년간 상처를 받은 내 안의 작은 아이에게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일기장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다. (pp.262~263)

5 저자는 기억은 못 하지만 몸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있다고 믿고, 기억력이 약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합니다. 저자의 기록들을 보면서 '몸에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내가 잊어버린 아홉 개가, 그러니까 내 머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홉 개가 내 몸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다.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경험에서 내 머리는 그 곡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몸에는 그 눈물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좋아하는 음악 앞에선 기꺼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책 한 권을 읽고 난 후에도 그 줄거리나 주인공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그 책을 떠올리면 심장의 어떤 부분이 찢긴 것은 내 몸에 그 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었던 장소, 그때의 바람, 설렘 등은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마치 자전거 배우기와 같아서 한번 강렬하게 몸에 기록된 경험들은 어지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어쨌거나 누구나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니, 몸은 감정을 기록하는 일도 떠맡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내 몸은 유난히 나쁜 뇌 덕분에 유난히 고생이다. '몸에 기록한다.'

이 문장 덕분에 나는 서른 살이 넘어 나의 기억력과 화해하였다. 더 이상 나는 내 기억력을 책망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꼭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니. (중략) 그러니 이 책은 그 기록에 관한 기록이다. 경이로울 정도의 기억력을 가진 한 인간의 몸부림에 관한 기록이 될 것이다. (pp.7~8)

6 카피라이터인 저자는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을 가꿔야 하며 그것은 바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살아야 잘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볼까요?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을 가꿔야지, 라는 핑계로 수없이 읽고, 듣고, 보고, 돌아다녔다. 17년을 그랬다. 그 핑계 덕분에 삶은 더 없이 풍성해졌다.(중략)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역시 거짓말이다. 토양이 비옥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막연하게, 듣성듣성, 이런저런 방법으로 토양을 가꾸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어떤 필요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토양에서 건강한 새싹이 자라길 뿐이다. (pp.276~277)

결국 잘 쓰기 위해 좋은 토양을 가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 살아야 잘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런 인간인 것이다. '쓰다'와 '살다'는 내게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나는 이 문장 속에서도 언제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쓸 수 있어 진실로 다행이다. (p.278)

7 저자는 물리적 지중해를 향하여 떠나기에 앞서, 지금, 여기, 정신적 지중해에서 '행복'한 나를 먼저 발견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이 말을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봅시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일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꿈꾸는 그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곳에서도, 그때,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중략) 그땐 그것이 또, 일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의무는, 지금, 이곳이다. 내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하여 이 일상을 무화(無化)시켜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의무이다. (p.75)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다.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항상 깨어 있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부단한 성실성으로 순간순간에 임하는 것,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 오직 지금만을 살아가는 것, 오직 이곳만을 살아가는 것, 쉬이 좌절하지 않는 것,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피할 수 없다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일상에서 도피하지 않는 것,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 분명 프랑스를, 지중해를 알기 위해 책을 펼쳤었다. 그렇다. 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지중해를 만나고 싶었다. 태양과 구릿빛 피부와 풍부한 해산물과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공간을 꿈꾸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결국 도착한 곳은 정신의 지중해였다.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지 않는 것. 지금의 이 태양을 남김없이 사는 것. 영원히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영원히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지만, "무겁지만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아무리 해도 끝장을 볼 수 없을 고통을 향하여 다시 걸어 내려오는" 시지프처럼. 자신의 불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깨어 있으면서 결국 '자신의 운명보다 우월한 시지프의 공간이 바로 지중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지중해를 알아버려서 급기야 출근조차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pp.86~87)

8 이 책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일상에 대한 기록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제목처럼 모든 요일의 기록을 하는 저자의 태도를 긍정, 부정 중 좀 더 어느 쪽으로 보셨나요?

마이클 커닝 햄의 이 구절이 내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나를 구원할 의무는 나에게 있었다. 매일은 오롯이 내 책임이었다. 그 깨달음에 앞의 글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무더질 때마다 내가 쓴 이 기이한 반성문을 다시 꺼내 읽었다. 읽고 읽고 또 읽었다. 나에게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p.76)

- 긍정
- 부정

9 여러분이 몸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읽다, 듣다, 찍다, 배우다, 쓰다 중 사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독서토론 소감을 나눠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발언 중 인상 깊었던 것을 꼭 이야기해주세요.